

세 개의 제시문은 기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학적 탐구방법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주장에서는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시문 나와 다는 모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먼저 제시문 나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서 상관관계 자체가 인과관계로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페타바이트 시대로의 도약을 통해 이제껏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상관관계를 초월적인 양의 정보를 통해 밝혀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풍부한 정보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대해서 사고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그에 비해 제시문 다는 양에만 기반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제시문 나와 달리 인과관계를 한층 더 복잡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왕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가 단순한 조세 제도 때문이 아닌 전쟁이나 애국심 등의 제 3의 상황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통해 권위가 실추된 것의 정확한 원인들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제시문 다는 인과관계를 세우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 다와 달리 인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선후 관계를 통해 어떠한 일이 다른 일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는 습관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추리를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면서 추론 과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적 경험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할 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인과관계 성립으로도 기인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는 주장은 전반적으로는 [표1]과 [표2]에서 모두 성립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세부적인 수치 또한 관찰할 수 있다.

먼저 [표 1]을 보면 전반적인 양상으로는 건강 상태가 상인 사람의 분포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건강 상태 하층의 고졸 미만과 고졸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하이면서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사람은 고졸보다 높은 22.7%를 차지함으로써 예외적인 수치를 보인다.

[표 2]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다. 소득 수준이 중층과 하층인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교육 수준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득 수준이 상층이면서 건강 상태가 상인 사람들의 분포도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상층이면서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은 고졸인 16.6%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야 하는 반면 높은 수치인 25.6%를 나타냄으로써 예외가 된다.

이를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기술하자면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가 비례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났을 때에도 가설이 완전히 빗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표1]과 [표2]에 기술된 것처럼 예외적인 수치가 나타남으로써 가설의 완벽한 증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가 가설의 정립을 증명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제시문 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득 수준이 변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소가 공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인식해야 한다.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가설을 세우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을 동시에 고려해봄으로써 보다 확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소득 수준이 아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자리하게 된다.